

9

2019

고맙다! 양양  
THANK YOU YANGYANG

# 양양소식

Vol. 292





지난 8월27일 우리군민 3천여 명은 청와대 앞에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정상추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원정시위를 펼쳤다.

# 양양소식

Vol. 292

## CONTENTS

### 양양소식 · 292호

| 발행일 2019년 8월 26일 | 발행인 양양군수  
 | 편집인 기획감사실장  
 | 발행처 양양군 Tel. 033-670-2103 Fax. 033-670-2276  
 www.yangyang.go.kr

# 의기양양

## 4 뉴스 브리핑

- 4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멈추지 않는다!
- 6 양양경찰서 신설 확정 2024년 개서목표  
내년 도민체전 및 장애인생활체전 엠블럼(안)선정
- 7 1979년도 '전국 제1의 한우 보유' 명성 되찾는다
- 8 최고의 선물 양양송이! 황금빛 힐링 속으로  
종합인터넷 쇼핑몰 '강원양양몰'오픈
- 9 쓰리진 피서객 심폐소생술로 생명 구한 우리의 이웃들  
양양군청 기획감사실 김덕주 주무관, 정보보범공무원 표창 수상
- 10 의정소식 설악산 오색 삭도 설치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성명서 발표



## 희망양양

- 12 기획취재 양양군가족센터, 구분없는 복지서비스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듭니다.
- 14 ISSUE & PEOPLE 지금, 어떤 표정으로 살고 있나요?
- 16 숨어있는 향토사 이야기 양양 3·1만세운동과 현북면 만세운동

## 오감양양

- 18 SNS 속 양양 건기 좋은 길, 양양의 가을 빛 속으로
- 20 발걸음 촌촌, 마을가는길 현남면 북분리
- 22 맛있는 양양여행 송이버섯

## 열린양양

- 24 책이야기 연금술사 / 이달의 신간
- 25 오피니언 호림유격 돌발사건
- 26 알림마당 공공기관 행정정보
- 28 공익광고

양양군정소식지 「양양소식」은 월간 무료 구독지입니다.  
 구독은 [jsmj4@korea.kr](mailto:jsmj4@korea.kr)로 신청 바랍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멈추지 않는다!

주민 3천여 명, 청와대 앞 대규모 원정집회  
케이블카 정상 추진과 조기착공에 대한 주민의 열망과 의지를 표출

지난 8월 27일 우리 군민 3천여 명은 청와대 앞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정상추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원정시위를 펼쳤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에 대한 환경부의 최종 결정을 앞둔 가운데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양양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난 8월 20일 친환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는 양양군청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대규모 상경 집회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대규모 상경 집회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대한노인회, 재경양양군민회, 양양지역 주민 등 3천여 명은 하루 생계도 뒤로하고 원정 시위에 나서 청와대 앞에서 케이블카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촉구하며 케이블카 조기 착공에 대한 주민의 열망과 의지를 표출하였다.

이를 위해 양양군민은 아침 7시부터 마을회관 등 집합 장소에 모여 마을과 사회단체별로 40대의 버스에 나누어 탑승한 후 각각 청와대로 출발했다.

친환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는 오전 11시 무렵, 청와대 앞에 첫 번째 버스가 도착, 미리 준비된 집회 장소에서 앞서부터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잡아 집회를 시작 했다.

버스 행렬이 모두 도착 후 정준화 친환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장을 비롯해 김진하 양양군수 등의 구호 제창으로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우리군민은 무더위 속에서도 '결사항전'등이 적힌 머리띠를 매고 '양양군민 죽어간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승인하라'등의 구호를 외치며 오색케이블카 설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진하 군수, 고제철 의회의장, 정준화 친환경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장, 최선남 자유총연맹 전국여성협의회회장을 비롯한 50여명의 주민이 오색 케이블카 정상 추진의 결연한 의지를 담아 식발식을 거행했다.

이어 지체장애인들도 설악산의 아름다운 절경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힘을 보탰다. 집회는 호소문 낭독, 퍼포먼스를 통해 군민의 염원을 전달하며 4시까지 계속 되었다.

## 설악산 훼손·오염 막기 위해 환경부에 오색 탐방로 폐쇄 요청 환경단체에 탐방로 폐쇄 동참과 향후 케이블카 공동운영 제안

특히, 오후 2시 김진하 군수, 고제철 의회의장, 정준화 친환경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장, 김광환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 등이 청와대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면담을 통해 사법부의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한 사업임을 강조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리는 호소문'에서 "오색케이블카는 최소한의 훼손으로 자연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지금까지 검증된 최선의 수단"이라며 사업 추진에 대한 지역민의 간절하고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였다. 또한 오색탐방로 폐쇄를 환경부에 요청했고, 환경단체에는 탐방로 폐쇄 동참과 함께 향후 케이블카 공동 운영이라는 제안도 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수많은 절차를 거치고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조건부로 결정되었고, 심지어 법원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까지 받아 정당성을 확보하고 환경영향평가 본인의 보완서를 제출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우려되는 점은 금번 환경영향평가의 결정과정이 전문기관(KEI,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의견과 갈등조정협의회의 의견을 토대로 최종결정되는 상황에서 이사업을 적폐사업으로 규정하고 부동의 권고를 제시한 김은경 전환경부장관의 "환경정책 제도개선위원회"에서 활동한 기관이 참여해 부동의 의견을 냈다는 점이다. 불공정한 평가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향후 문제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

이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170여명의 공무원과 의료진 파견 및 방범차 2대, 구급차 등이 배치되며 집회동안 단 한건의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19일에는 친환경 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와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친환경 케이블카 조속 추진을 촉구하는 대국민성명서를 발표했으며, 김진하 군수와 정준화 위원장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사업에 대한 법적인 정당성을 재 강조했다.

또한, 양양군 주민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정부 시범사업인 친환경 오색(설악산) 케이블카를 설치해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을 올려 청원을 진행하는 등 사업 촉구에 대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문의 오색삭도추진단 삭도행정담당 Tel. 033-670-2530



## 양양경찰서 신설 확정! 2024년 개서 목표

양양경찰서 신설사업이 최근 정부 심사를 통과해 내년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6월초 행정안전부의 직제신설안에 양양경찰서 설치사업이 포함돼 통과된 데 이어 지난 8월 17일 기획재정부 심사에서 신설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최종 양양경찰서 신설안이 국회로 제출된다.

지난해 7월 양양경찰서 신설안이 행정안전부 심의는 통과했으나 최종 국회 심의 문턱을 넘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이에 양양군은 올해 양양경찰서 설립 재추진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정부 동향과 추진일정 점검을 위한 관계 기관 실무 협의, 군민 의지 전달, 중앙부처 협의 등 전방위적 대응을 펼쳐온 결과 최근 행안부와 기재부 동의를 얻어내는 성과를 얻게 됐다.

양양군은 강원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는 곳이다. 지난 1954년 양양읍 군행리에 양양경찰서가 개설됐지만 1963년 인군 속초가 시로 승격되면서 속초경찰서에 흡수됐다. 이후 지구대와 파출소만 운영되면서 수년간 치안 공백을 겪어왔다.

그러나 2002년 양양국제공항, 2017년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치안수요 증가하면서 경찰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곧 제기돼왔다.

강원도의회와 강원도시군의회의원협의회, 양양군번영회 등도 정부에 경찰서 신설 건의안을 전달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에는 10월 취항 예정인 플라이강원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경찰서 설립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미 양양군과 강원경찰청도 양양읍 송암리 일원 1만5000㎡ 부지를 공공청사용지로 입지를 선정하는 등 경찰서 신설 부지를 마련해 둔 상태로, 추후 타당성 용역 등을 통해 최종 부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실시설계비 등 주요 예산이 내년 정부예산안에 담겨지면 오는 12월 2일까지 예정된 정기국회에서 심의 의결을 통해 구체적인 예산규모가 확정되어 양양군의 오랜 숙원인 양양경찰서 신설사업이 속도를 내게 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실시설계용역 등 구체적인 후속 절차에 착수, 오는 2024년 개서를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가게 된다.

문의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Tel. 033-670-2221

## 2020년 도민체전 및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엠블럼(안) 선정

우리군은 내년 6월에 개최되는 '제55회 강원도민체육대회' 및 '제13회 강원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의 엠블럼(안)을 선정했다.

올해 5월부터 상징물 개발에 나서 용역 보고회 및 주민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엠블럼(안)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한 엠블럼은 강원도 양양군의 브랜드슬로건의 하트 모양에서 도약하는 강원도민의 모양을 표현하여 강원도민의 축제인 체육대회의 활동성을 입체감 있게 표현하고 사람형태는 양양의 태양과 산, 바다를 상징하는 색으로 표현하였고 엠블럼 주위의 별은 강원도 7개의 시와 11개군의 스포츠스타인 강원도민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형상화했다.

우리군은 올해 하반기 중 강원도체육회의 대회 엠블럼 사용 승인을 받아서 엠블럼을 비롯한 마스코트, 포스터 등 개발된 상징물을 사인물, 시설물류, 깃발류 등에 다양하게 응용하고 이를 적극 활용해 대회 활력을 불어넣는 체육대회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도민체전추진단장은 '내년 개최되는 제55회 강원도민체육대



회와 제13회 강원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양양군민과 강원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가 되도록 대회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55회 강원도민체육대회는 내년 6월 중 5일간 열리며, 제13회 강원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도민체전 대회가 끝나고 약 1주 후 3일간 양양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펼쳐진다.

문의 도민체전추진단 총괄운영담당 Tel. 033-670-2607

# 1979년도 '전국 제1의 한우 보유' 명성 되찾는다

2015년부터 한우 명품화사업 추진, 사육두수 4,873두→6,397두 확대



우리군은 민선7기 공약사항 가운데 하나인 양양한우 명품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79년도 한우개량 사업을 최초 시작해 전국 제1의 한우(암소)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2000년도 이후 사육 감소로 그 명성이 쇠퇴함에 따라 '한우 암소 명품 브랜드 사업'을 추진해 옛 명성을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한우 사육기반 조성 및 우수혈통 개량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사업비 207억 6,600만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양양한우 8,000두까지 적정두수 확보, 수정란이식 한우개량을 통한 거세우 1등급 출현율 향상, 벵짐 위주의 조사료에서 양질의 조사료 생산 확대 목표로 양양한우 명품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 결과 한우 사육두수는 2015년 4,873두에서 현재 6,397두까지 확대되었으며, 2018년 한우(거세우) 도축 출하 분석 결과 육질 및 육량지수 모두 상승하였고, 특히 육질 부분에서 1등급이상 출현율 점수가 전국(88.9%) 및 강원도(89.2%)를 추월한 90.1%를 기록해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적정사육두수 확보를 위한 사육기반시설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축사신축 30개소, 한우단지 조성 3개소가 조성됐다.

또한, 한우개량사업소 및 축산기술연구소와 연계해 수정란 이

식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해 고능력 한우 유전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추진하는 수정란이식 지원 340두를 포함, 2015년부터 1,145두에 대한 수정란 이식 지원 사업이 추진됐다.

이밖에도 초음파진단과 송아지 제각, 거세기술, 번식검진, 난소결찰술, 비육(육질)초음파 지원 등을 통해 소득 향상을 위한 사육단계별 우수개체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한우 품질 고급화를 위해 거세우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TMR 사료비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20두 이하 소규모 사육농가에도 사료비를 지원해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조사료 생산기반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 조사료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곤포 사일리지 제조비와 종자대, 기계·장비 등을 보급하고, 유희지와 겨울논에 추위에 강한 조사료(RG)가 재배될 수 있도록 조사료 전문단지 지원사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군은 양양한우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해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한 가운데 고능력 우량한우 육성과 조사료 생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며, 지역의 한우농가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시장에서 당당하게 겨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축산정책담당 Tel. 033-670-2705

## 최고의 선물 양양송이! 황금빛 힐링 속으로

양양속이축제 9. 26 ~ 9.29 (4일간) 펼쳐져

우리군 대표 인기 축제인 송이축제가 한발 앞으로 다가왔다. 송이 축제는 오는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남대천 둔치 및 양양시장,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등지에서 펼쳐지게 된다. “최고의 선물 양양송이! 황금빛 힐링 속으로”라는 주제로 공간구성, 주·야간 볼거리, 관광객 유치에 대한 전략을 새롭게 준비해 기존의 컨텐츠에서 벗어나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송이축제는 외국인 송이채취 현장체험을 송이보물찾기 행사로 통합운영한다. 또, 송이 주제관과 연계한 송이명품관을 운영해 양양송이의 브랜드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게 했다. 야간 공연, 빛 소망등 터널, 송이 힐링섬, 포토월 설치,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부스 운영시간을 저녁 8시까지 연장 운영해 관광객이 축제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했다.

VIP 송이요리 음식부스를 운영해 품격 있는 다양한 송이요리를 맛볼 수 있도록 했으며, 양양 오일장 및 토요일장과 연계해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 개최로 축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방침이다.

문화관광체육과장은 “송이·연어축제의 수준을 높여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나아가 우리군의 주요 문화 콘텐츠로 거듭남으



로써 축제를 매개로 한 우리군의 브랜드 이미지 향상으로 지역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관광체육과 관광마케팅담당 Tel. 033-670-2723

송이보물찾기 체험 인터넷 사전예매

2019.8.1(목)~9.22(일)

<http://song-i.yangyang.go.kr>

## 종합 인터넷 쇼핑몰 '강원양양몰' 오픈

9월15일까지 오픈 및 추석맞이 특판행사 열려

우리군은 중소기업제품, 농수특산물, 정보화마을 제품 등 지역의 생산품을 한데 모아 홍보 및 판매하는 양양군 종합 인터넷 쇼핑몰인 '강원양양몰'을 지난 8월 12일 오픈했다.

최근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 등 온라인 시장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인 양양몰의 소규모 쇼핑몰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사업비 4천 8백만원을 들여 중소기업제품, 농수특산물, 정보화마을 제품 등 각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홍보 및 판매를 '강원양양몰'로 통합 운영한다.

이에 강원양양몰은 오픈 및 추석맞이 특판행사로 9월15일까지 송천 떡, 해당마을 너비아니, 민물장어, 송이 꿀 등 양양군 내 우수 중소기업제품과 지역 특산품을 5~30% 할인행사 및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경품제공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특판행사는 기업에게는 제품홍보 및 판로지원을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추석선물을 구입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인터넷 쇼핑몰 <http://www.강원양양몰.com>를 통해 구입 가능하며 제품상담 및 문의처는 033-749-3371이다.



강원양양몰을 통해 양양의 다양한 제품을 한 번에 만 날 수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양양만의 상품을 발굴하여 강원양양몰에서 구매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강원양양몰'은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인 강원마트에도 입점한 상태로,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홍보 및 판매 효과가 극대화 되어 지역 농가와 업체의 판로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의 자치행정과 정보통신담당 Tel. 033-670-2460

## 쓰러진 피서객 심폐소생술로 생명 구한 우리의 이웃들

양양군 지경해변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남성의 생명을 구한 사람들이 알려지며 미담이 되고 있다. 지난 8월 4일 오후 2시 40분 경 현남면 지경해변 샤워장에서 샤워 중이던 30대 남성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 소식을 듣고 달려간 현남면 지경리 이종민(1959년생) 이장은 쓰러진 남성의 의식과 호흡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그 후 직업군인으로서 평소 응급처치 및 구조요령을 능숙하게 숙지하고 있던 12사단 정보통신대대 소속 직업군인 유지성(1993년생)씨는 의식을 잃고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진 남성의 심폐소생술은 물론, 경련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구토물을 개의치 않고 인공호흡을 수차례 실시했다. 신고를 받은 119구조대가 출동하면서 전화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때에도 유지성씨의 정확한 상황 전달이 사고를 수습하는 데 큰 정보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심장 정지가 갑자기 발생할 경우 4분이 지나면 뇌 손상이 오고 10분 이상이 경과되면 뇌 손상이 심각해지거나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는 만큼, 응급처치가 환자의 소생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이종민 지경리장은 환자가 구급차에 후송되자 보호자를 태워 병원까지 동행한 후 남성의 의식과 호흡이 돌아온 것을 확인하고 귀가하였다.



이종민



유지성

유지성씨는 "군인으로서 숙지하고 있던 구조요령으로 귀한 생명까지 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언제든지 사명감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으며, 이종민 이장은 "마을 이장으로서 해변 폐장까지 지금처럼 큰 사고 없이 피서객들이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끝까지 맡은 일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감사실 홍보담당 Tel. 033-670-2102

## 양양군청 김덕주 주무관, 정부모범공무원 표창 수상

지난 달 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월례조회에서 2019년도 상반기 정부모범공무원 표창 수여식을 실시했다.

이날 정부모범공무원 표창은 기획감사실에 근무하고 있는 김덕주 주무관(44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무총리 정부모범공무원 표창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국가 및 업무 발전에 기여한 5년 이상 재직된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수여된다.

김덕주 주무관은 2005년 건설과를 시작으로 공직에 임용된 이래 경제진흥과, 미래전략과, 오색삭도추진단, 경제도시과 등 여러 부서를 두루 거치는 동안 지금까지 주민과 밀착되는 프로젝트 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남다른 열정으로 군정의 핵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오색 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 오색삭도사업, 양양 신항만 기본계획 수립 등 군정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굵직한 사업 추진에 참여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혁신 사업 발굴 및 현안 사업의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

또한, 특유의 성실함과 친화력,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양양군 발전과 주민 및 직원 간의 화합, 복지를 위해 고충 현장을 방문하고 상담하는 등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김덕주 주무관은 "군정 발전을 위한 굵직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 자체에 보람을 느끼고 지역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보람된 일을 하면서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기쁘면서도 부끄럽다. 앞으로도 영예로운 수상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성실히 근무하겠다."고 말했다.



항상 성실하게 일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는 김덕주 주무관은 2005년 행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14년간 좌우명인 '평범하지만 아름답게 살자'와 같은 진솔한 마음으로 공직에 임하고 있으며, 배우자인 함순희씨와 슬하에 2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

문의 기획감사실 홍보담당 Tel. 033-670-2102



## 설악산 오색 석도 설치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성명서 발표 오색 케이블카 설치 촉구 집회 참가



양양군의회는 8월 12일 청사 앞에서 「설악산 오색 석도 설치 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성명서를 채택했다.

군의회는 성명서에서 “설악산 오색 석도 설치사업은 정부가 타당성을 검토해서 시범사업으로 승인했다”며 “일부 환경단체의 반발로 인한 수년간의 각종 소송 제기과 승소가 증명하듯이 환경단체의 주장은 환경보호를 앞세운 무조건적인 반대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양양군민들은 수년간의 지난한 과정을 겪었지만 그 의지는 여전히 바위처럼 굳건함을 확인했다”며 “환경부는 친환경 오색 석도 설치를 통해 설악산의 훼손을 막고, 설악산의 아름다움을 국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이며, 의원들은 설악산 오색 석도 추진사업이 설치되는 그날까지 군민과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고제철 의장은 “설악산을 가장 사랑하는 것은 설악산의 품에서 살아가는 양양군민일 것”이라며 “설악산 오색 석도 설치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원들은 지난 8월 27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설악산 오색 석도 설치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상경집회에 참가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결정을 앞두고 열린 이번 집회에서 의원들은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사업이 승인되는 그날까지 군민들과 함께 할 것을 다짐했다.

##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8건 등 심의·의결



양양군의회(의장 고제철)는 지난 8월 19일부터 8월 26일까지 8일간 제24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들은 조례 제·개정안 8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례군(郡)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된 양양군 모기지항공사 지원 등 4개 사업, 1억 3천만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편성했다.

의원들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웰컴센터 준공 후 시일이 흘렀음에도 1층 휴게공간 조성이 안되었음을 지적하며, 조속히 군민들의 쉼터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를 당부했다.

또한 의원들은 군에서 올 한해도 상반기 신속집행을 위해 애썼지만 일상생활에서 체감효과를 못느끼고 있다며 연말에 각종 공사를 줄속으로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노력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쌍천 주변 대형관정 지하수 조사용역은 좀 더 빨리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농가에 중요한 문제인만큼 행정에서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군계획도로 개설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반영, 실제 교통량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경국민여가캠핑장 운영을 위해 2016년에 조례를 제정한 후 현재는 현실과 괴리된 각종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니 조례 개정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양군의회 실시간 IP방송 청취 - 양양군의회 홈페이지(<http://www.yangyangcouncil.go.kr>)

# 양양군가족센터, 구분없는 복지서비스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듭니다.

무더운 여름방학에도 양양군가족센터에서는 아이들이 즐겁게 놀면서 배우는 외국어 교실이 인기가 높았다. 누구나 신청하면 영어, 일어, 중국어를 원하면 엄마와 함께 배우며 노는 시간이었다. 아이들이 원하면인 다문화가족 선생님과 즐겁게 배운 덕분에 인기가 많아서, 방학 동안에만 운영했는데 앞으로는 학기 중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양양군가족센터는 이처럼 일반 가족이나 다문화 가족의 아이들이 구분없이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이다. 양양군민이면 누구나 구분없이 함께하는 가족센터 프로그램이 특별한 이유이다.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해피해피DAY

## 양양군가족센터로 통하다.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사회문화도 변화하고 있다. 대도시는 1인 가족이 늘면서 주거와 식생활 소비생활의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하자 복지 서비스도 맞춤형으로 변화하고 있고, 농어촌 지역에서는 다문화가족이 늘고 있어 다문화 가정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건강가정센터와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각각 운영되고 있는데, 양양군은 두 센터를 통

합해 '양양군가족센터'로 명칭을 바꾸었다. 일반가정이나 다문화가정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복지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이다.

한국어 교육 서비스이외에 일반 프로그램은 누구나 참여하도록 진행하는데 다문화 가족은 물론 일반 가족들이 구분없이 참여하면서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가족돌봄 프로그램



부부교육 프로그램 다정다감 어루만져요

##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로 지역공동체가 돈독해져요.

다문화가족의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언어소통이다. 특히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어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러야하는데 그동안 양양에는 한국어 교육 강좌가 없었고, 교육보다는 취업을 우선한 경우는 시간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양양군가족센터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방문교육과 아이돌봄서비스, 셔틀버스 운영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전문 인력인 방문교육 지도사 2명, 아이돌봄 전담인력, 아이돌보미 14명의 교사들이 있어서 아이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했

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있다. 적극적인 복지서비스 덕분에 다문화가정 여성들은 아이들과 함께 놀며 배우는 외국어 교실에 원어민 강사로 참여하거나,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육을 위해 각 나라의 전래동화를 인형극으로 공연하는 인형극 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일본, 중국, 베트남, 필리핀의 전래동화를 인형극으로 제작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형극 공연을 하며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류를 하는 셈이다.

## 다양한 복지 서비스로 건강가정 만들기 플랫폼

지난해 양양군 건강가정센터에서 진행한 부모역할지원이나 아버지역할지원 프로그램, 가족봉사단, 가족캠프 등 건강한 가정 만들기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운영한 언어소통프로그램과 결혼이민자의 정착 과정과 미래 설계를 돕는 프로그램은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하는데 도움이 컸다.

이처럼 성과를 거둔 프로그램들이 올해는 통합된 양양군가족센터에서 일반가정이나 다문화가정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다. 부모의 역할교육이나 부부교육은 물론 다문화를 이해하고 언어를 배우며 소통하는 프로그램 등이다. 열린 교육과 프로그램으로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의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융화하고 소통한다면 지역 공동체는 더욱 탄탄해지고, 지역민들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로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양양군가족센터가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이 더욱 기대된다.

(글·사진 : 편집부)



브라보 프렌 Daddy



다문화 수업



우리아이학교보내기 부모교육

ISSUE & PEOPLE \_ 귀촌 3년차 신윤호 씨 & 귀촌 3개월차 고영민 씨

## 지금, 어떤 표정으로 살고 있나요?

표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지나간 자리이다. 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통해 바라 본 표정이 지금 살아가는 현실을 반영하기도 한다. 지금 행복한지, 아니면 정반대인지.

도시 생활에 대한 고달픔과 전원생활에 대한 로망으로 많은 사람들이 귀농·귀촌을 선택하는 추세이다. 양양군은 매년 80여명이 귀농·귀촌하여 정착할 만큼 도시민들로부터 꾸준한 인기를 얻는 지역이다. 안정적인 터전을 벗어나 낯선 지역에서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표정으로 살고 있을까?

### 도시의 표정에서 농부의 표정으로



신윤호·신윤경 가족

서울에서 살던 신윤호(36세)·신윤경(38세) 부부는 2016년에 네 살 아들과 함께 양양으로 이주했다. 대기업의 연구원이었던 신윤호 씨는 가족 얼굴 볼 시간도 없이 일에 치여 살았다.

도시생활에 피로감을 느낀 그는 자유롭게 자기 일을 하면서도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귀촌을 결심했다. 여러 귀촌지를 놓고 고민하던 중 서핑으로 한창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이 활발하고, 생활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진 양양이라면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것 같아 이주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양양살이 3년차. 그 사이 신윤호 씨는 총 5회의 양양 귀농귀촌교육과 5개월간의 선도농가현장실습을 거쳐 송전리에서 느타리버섯을 재배하는 새내기 농부가 되었다.



신윤호씨 앞마당

때가 되면 월급을 받던 직장생활과는 달리 농사는 일한만큼 보상이 돌아오는 일이라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하지만, 내 일을 하고 있다는 뿌듯함과 가족이 함께 만드는 일상의 즐거움에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더 편안하다고 한다. 아내 신윤경 씨는 남편의 표정이 확 달라졌음을 느낀다. 도시에서 직장을 다닐 때는 어둡고 우울한 표정이었는데,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얼굴이 밝아졌다는 것이다. 그녀 역시 미세먼지 때문에 전전긍긍하던 도시 생활보다는 맑은 공기를 마시며 아이와 마음껏 외출할 수 있는 지금 생활에 만족한다. 곤충을 무서워하던 첫째 아이는 스스로없이 자연을 누비는 여섯 살 시골 아이로 성장했고, 태어난 지 10개월이 된 둘째 아이도 깨끗한 자연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귀농·귀촌을 걱정과 부러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대해 신윤호 씨는 그것이 '잘 몰라서' 느끼는 감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시골생활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깨고, 농부의 삶과 귀촌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할 방법을 모색 중이다. 신윤호 씨는 농사를 모르던 서울 남자에서 농촌을 사랑하는 농부로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다.



신윤호씨가 재배하는 느타리버섯

## 꿈꾸던 전원생활이 현실로

파주에서 학습지 관련 일을 하던 고영민 씨(44세)는 2개월 전 아내 장은경 씨(41세)와 함께 양양 서문리로 이주해 왔다. 평소 캠핑을 좋아해서 산과 바다, 계곡 등지를 많이 다닌 두 사람은 그 모든 자연 환경을 다 갖춘 양양에 자연스럽게 이끌리게 되었다. 오래 전부터 전원생활 꿈꾸던 부부는 양양에서 진행되는 귀농·귀촌교육을 접하면서 조금 일찍 그 꿈을 실현하기로 했다. 이주를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어디든 다 살아가는 곳이라는 초긍정 마인드로 시골살이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은 없었다. 고영민 씨는 올해 4월 양양귀농·귀촌 교육을 시작으로 5월에 양양에서 한 달 살기를 체험한 후 바로 아내와 함께 양양으로 내려왔다. 그동안 꼼꼼히 계획을 세우고, 부부 간의 충분한 대화를 나눈 덕분에 빠르게 일을 진행할 수 있었다.

고영민 씨는 현재 느타리 버섯재배를 목표로 선도농가현장 실습 과정을 이수 중이다.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다는 바람으로 귀촌을 결심한 그는 귀촌 선배 신윤호 씨의 사



고영민·장은경 부부

례를 표본 삼아 열심히 배우고 있다. 신윤호 씨 역시 그 어떤 교육생 보다 적극적이고 열의가 넘치는 고영민 씨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남편이 귀농귀촌교육에 매진하고 있다면, 아내 장은경 씨는 연고도 없는 낯선 지역에 적응해 가는 중이다. 양양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살고 있는 거주지역에 대한 공부도 계속하고 있다. 물론 아직 이렇다 할 고정 수입이 없어 불안함이 있지만, 답답한 도시 생활보다 좋아하는 자연을 가까이 둔 지금이 훨씬 좋다고 한다.

시골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품고 무작정 뛰어난 것이 아니다. 신윤호 씨와 고영민 씨는 이전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살고 싶다는 바람으로 여기까지 왔다. 지금 두 사람의 표정은 내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

〈글·사진 : 편집부〉



## 양양 3·1만세운동과 현북면 만세운동 (기사문리 만세운동)

1919년 4월 9일은 양양 3·1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몇새째로, 현북면 기사문리(其士門里) 관 고개(만세운동 이후 만세고개라 부름)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만세운동의 마지막 날이 되었다.

현북면 만세운동 계획은 양양 장날인 4월 9일 양양 장마당에 가서 만세운동을 하기로 하였는데, 4월 6일 원일전리 박원병이 동사하려고 소지한 독립선언서가 발각되어 일경에 체포되면서 일이 처음부터 꼬였다.

그러자 그의 형 박규병은 장리 훈장인 이성윤과 함께 원일전리 주민 40여 명이 모인 가마터에서 이 사실을 알리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리고 7일 박규병이 원일전리, 장리, 도리에서 수백 명의 군중을 동원하여 양양경찰서에 구속된 박원병의 석방을 요구하는 만세운동을 벌였기 때문에 일경의 감시는 더욱 강화되었다.

### 면민대회와 같은 분위기로 만세운동을 시작하다

현북면 만세운동은 상광정리 오세옥과 이응렬이 광정감리교회를 중심으로 주동이 되었고, 도리 김재한, 오익환, 박원병, 오정현 등 한학자들은 각 마을 구장들과 합세하여 극비리에 추진하였다.

9일 아침이 되자, 상광정리 김종대는 며칠 동안 만든 태극기 34개와 대형 태극기 1개를 마을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대치리(大峙里) 구장 김종성(金鍾聲)을 비롯한 각 마을 구장들이 앞장을 서서 현북면 사무소로 갔다. 군중이 모이자 먼저 도착한 말곡리 문종석, 김익열, 김창환, 권광식, 김종성, 한윤성, 이희원, 오정현, 김우근 등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군중을 독려하기 시작하였다.



현북면 기사문리 만세고개

### 기사문 주재소로 방향을 바꾸다

현북면 사무소 주변에서 한창 격양된 분위기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양양으로 가려고 할 때, 평소 지역에서 신앙이 높은 김익제(金翼濟)가 찾아와 군중을 저지 시켰다. 그가 양양에서 이곳으로 급히 온 이유는 지금 양양에는 일본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많은 군중이 몰려간다면 인명 피해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이를 만류하려 왔다고 하였다.

이렇게 되자 부득이 계획을 바꾸어 기사문 주재소 앞에 가서 만세를 부르기로 결정하였다. 하광정리에서 기사문 주재소 사이에 나지막한 관 고개(현 만세고개)를 만세 군중과 함께 구

경나온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줄을 서서 노래도 부르며 의기양양하게 고개를 넘었다.

그러나 이미 기사문 주재소에도 만세운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강릉 수비대가 도착하여 대기하고 있었다. 만세 군중이 주재소 전방 다리 부근에 이르렀을 때 주재소 순사 이홍근이 나와 선두를 막았다. 한참 동안 군중과 옥신각신하였는데, 이를 무시한 하광정리 구장 김진혁의 선창으로 만세를 크게 외쳤다. 곧이어 군중이 따라 부른 만세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였다. 그러자 주재소 옆 개울 언덕에 숨어 있던 수비대가 갑자기 탕

~탕~탕 발포하기 시작하였다. 순식간에 선두에 섰던 주민들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그리고 온통 피비린내와 화약 냄새와 적막이 한참 동안 감돌았다. 잠시 후 사방에서 신음소리와 함께 군중들은 흩어졌다.

〈당시 상황을 4월 10일 오전 10시에 강원도장관이 보고한 전 화보고문은 다음과 같다.〉

“양양군 헌북면 하광정리 아소교도(襄陽郡 縣北面 下光丁里

耶蘇教徒)를 중심(中心)으로 한 600명 4월 9일 오전10시(限 600名 四月九日午前10時) 지게 봉(棒)을 휴(携)하고 만세(萬歲)를 고창(高唱)하면서 기사문경찰관주재소(其士門警察官駐在所)를 습(襲)하여 폭행(暴行)하다 때마침 강릉수비대(江陵守備隊)로부터 래(來)한 보병 5명(步兵 五名)과 공력(共力)하여 발포진압(發砲鎮壓)에 노역 폭민사자 9명(努力 暴民死者 九名)을 출(出)함 외(外)에 부상자 약간(負傷者 若干) 있는 모양(模樣)이나 불명(不明)”



3.1절 기념행사 기사문리 마을 벽화

## 전국에서 가장 극렬하게 일어난 만세운동으로 기록되다

이렇게 현장에서 9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순식간에 벌어졌다. 당시의 피살자는 전원거(全元擧, 하광정리), 임병익(林秉翼, 중광정리), 홍필삼(洪必三, 어성전리), 김석희(金錫熙, 어성전리), 고대선(高大先, 어성전리), 황응상(黃應想, 어성전리), 문종상(文鍾祥, 말곡리: 2018년 11월 문종희(文鍾熙)로 조사됨), 진원팔(陳元八, 어성전리), 이학봉(李學奉, 명지리) 등 9명이다.

〈양양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위 사망자 중 문종상(1912년생)은 당시 8세로 만세운동에 구경나간 어린아이였으며, 1979년 3월 7일 양양읍 구교리에서 사망하였다. 그의 형 문종희(文鍾熙 · 1902년생)는 당시 18세로 만세고개에서 일경이 발포한 총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고 남평 문씨 족보에 기록이 남아있다. 현재 기록상 문종상은 문종희의 오류임을 밝히고자, 2018년 11월 국가보훈처에 문종희를 독립유공자로 신청을 하였다. 또한 1923년 12월 1일자 '개벽 42호'에는 사망자 총 10명으로 기록하고 있어 앞으로 사실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이 양양 3·1만세운동은 1919년 4월 4일부터 9일까지



만세운동 재현 행사

지 6일간, 매일매일 6개면 82개 마을에서 남녀노소 연 인원 1만 5천여 명이 참가하였다. 총 12명의 사망자와 43명의 부상자, 체포 142명 중 69명이 실형을 받았고, 후일 일제는 참가자 명부를 작성해 놓고 수없이 많은 주민을 체포하여 태형을 가하였다. 이에 전국 지방에서는 가장 조직적이며 비폭력적으로 일어났지만, 무고한 희생자가 많았던 기미만세운동으로 기록하고 있다. 〈글·사진 : 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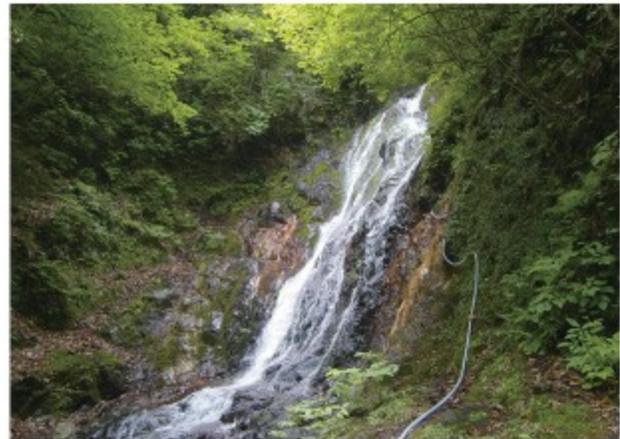
## 걷기 좋은 길, 양양의 가을 빛 속으로

여름이 떠난 자리에 가을이 온다. 신선한 바람과 색색으로 물들어가는 가을, 사색을 즐기며 걷기에는 이만한 계절이 없다. 천천히 보이는 풍경들과 마음에 떠오르는 이야기를 친구 삼아 양양의 가을을 걸어본다. 그 길의 끝에는 산행의 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양양의 약수가 선물처럼 기다리고 있다.

### 오색찬란한 가을 풍경 속으로 오색 트래킹과 오색약수

가을하면 떠오르는 곳, 색색의 빛깔을 품은 양양의 오색으로 가을 트래킹을 떠나보자. 오색을 즐기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코스가 있지만 가볍게 즐기기에 오색약수터에서 용소폭포 탐방지원센터까지 가는 주전골 코스를 추천한다. 투명한 물빛과 향긋한 풀향기, 장대한 기암괴석의 자태는 걷는 이의 가슴을 설레이게 한다.

오색약수는 1500년 경 오색석사의 한 스님에 의해 발견되었다고 한다. 마치 탄산음료처럼 짜릿한 것이 뒷맛도 묘하다. 약수에 함유된 철분과 탄산, 나트륨 등의 성분 때문인지 맛은 생소해도 위장병, 빈혈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 깊은 골짜기 속 보물같은 미천골 그리고 불바라기약수터

산이 높고 골짜기가 깊은 12Km의 미천골을 걷다보면 나뭇가지 흔들리는 소리, 계곡 물소리, 계절을 노래하는 새울음 소리에 감탄이 터져 나온다. 미천골에서는 보물 444호로 지정된 선림원지 삼층 석탑을 비롯한 석등 부도 등이 남겨 있는 선림원지를 만날 수 있다.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천천히 거닐면 번잡한 마음이 가다듬어 진다. 미천골의 숨은 보물 중 또 하나는 바로 불바라기 약수터이다. 높이 30m에 달하는 청룡폭포와 황룡폭포를 만날 수 있는 불바라기 약수는 대장간이 많아 온통 불 바닥이었다는 이야기와 물을 마시면 마치 뜨거운 불을 삼킨 것 같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철분과 탄산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오묘한 맛을 자랑하기도 한다.

##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곳 갈천 등산로와 갈천약수

아름다운 가을 단풍을 느끼며 가볍게 걷는 코스로 갈천약수터를 추천한다. 갈천약수터는 경사가 거의 없이 평탄하여 천천히 주위의 풍광을 음미하며 걷기에 좋다. 복잡한 생각은 내려놓고 걷다보면 소박한 길의 풍광이 마음으로 스며든다. 머리 위 색색의 빛깔의 단풍이 흔들거리고 청량한 계곡소리와 다람

쥐가 반겨주는 길을 걷다보면 한모금에 갈증을 날려버리는 갈천약수를 만날 수 있다. 탄산과 함께 철분을 함유하고 있는 갈천약수는 빈혈, 위산과다, 충치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걷는 길이 어렵지 않아 약수물을 받아 약수밥, 백숙, 리면 등의 요리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글·사진: 편집부)



## 9월 특별한 즐거움, 양양 송이 축제 - #양양여행코스 #양양박2일여행 #송이축제



# 村村

## 발걸음 촌촌, 마을가는길

양양군 현남면 북분리

가족과 함께하는 캠핑명소 북분리솔밭캠핑장.  
풍경 좋은 북분리에 귀농귀촌인 부쩍 늘어,  
주민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노력으로 단합을  
이루다



한 여름 해수욕장을 운영하느라 해변을 끼고 있는 마을은 무척 바쁘는데, 북분리는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어 함종천 이장은 새벽부터 밤까지 캠핑장을 지키느라 분주하다. 북분리솔밭캠핑장은 해변이 조용하고 아름다워 가족이 함께 즐기기에 좋은 해변이라는 네티즌들의 반응이다. 올해 덕분에 마을수익사업으로 성과가 크다니 고생한 만큼 소득이 나고 있어 앞으로 캠핑장을 특화시키려는 계획도 있다. 북분리의 뜨거웠던 여름이야기를 만나본다.

### 차 대신 탁트인 전망을 선물하는 솔밭캠핑장

올해 북분리 해변은 군사 철조망이 걷히고 솔밭캠핑장 사이트가 120 스폿으로 확장돼 7,8월 피서철에 큰 인기를 모았다. 요즘 양양해변이 서핑 스폿으로 인기를 모으면서 젊은이들의 주목을 받지만, 북분리 해변은 가족과 함께 피서를 즐기려는 가족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입소문이 났다. 솔밭에 캠핑 스폿이 조성되고 샤워장이나 화장실등이 깨끗이 관리되면서 가족단위 캠핑족들이 단연 손꼽는 캠핑명소가 되었다.

또 해변이 완만해 아이들도 안전하게 물놀이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무엇보다 해변을 오가는데 위험하지 않게 차 없는 해변을 만들어 큰 호응을 얻었다. 해변로 250 미터에는 주차하지 않게 주차시설을 충분히 갖춘 덕분이다. 솔밭에 텐트를 치고 탁트인 바다를 전망할 수 있고, 군부대 경



비초소도 포토존으로 변신해 새로운 볼거리가 되는 등 안전하고 전망 좋은 해변으로 인기가 높았다.



## 귀농귀촌인구가 인구의 절반

해변에서 7번 국도를 가로지르며 안쪽으로 길게 이어진 북분리 마을은 최근 더욱 단장돼 깨끗하게 정돈됐다. 기업형 새농촌건설사업으로 마을 안길에 꽃길이 조성되고 쓰레기장을 새로 만든 데다 서낭당 정비 등으로 마을의 이미지 개선에 힘쓰고 있다.

북분리 100세대 180명 가운데 절반이 귀농 귀촌한 주민으로 북분리는 12골 마을 어디에서나 바다를 볼 수 있는 풍광 좋고 깨끗한 마을이어서 귀농 귀촌하려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 하지만 북분리는 오랫동안 마을 주민 간의 소통에 어려움이 컸다. 지난해 퇴직 후 고향으로 돌아와 마을 일을 맡으면서 함종천 이장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화합과 소통이었다.

“오래전부터 북분리는 윗동네 아랫동네간의 갈등이 깊었

어요. 제가 마을일을 맡으면서 지난해 포럼을 7회를 열었던 것도 주민들이 소통하고 화합하기를 바랐는데요, 다른 지역의 사례도 보고 얘기를 나누다보니 공동체라는 인식을 하면서 마을일에 조금씩 참여하는 것을 보면 변화되고 더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주민 간 소통이 어려워 그동안 마을단위의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는데 지난해부터 포럼과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마을일은 다 같이 하는 것이라는 인식으로 바뀌면서 마을안길꽃가꾸기 사업 등에 주민들의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여가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해 2주일에 한 번씩 함께 모여 양말목 공예를 하며 즐겁게 시간을 보낸다니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 사계절 캠핑장 운영으로 마을 소득사업

마을 주민 57세대가 출자한 솔밭영농법인은 캠핑장 운영을 위해 설립됐는데, 지난해는 시설투자 등으로 재투자했지만 올해는 캠핑장 운영 소득을 주민들에게 배당할 계획이다.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밤낮없이 캠핑장을 관리해온 함종천 이장과 배수근 반장 등 주민들은 내년부터 북분리솔밭캠핑장을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4계절 운영해 북분리의 마을사업이자 소득원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차없는 해변, 깨끗하고 시설 좋은 솔숲캠핑장으로 이름을 알리고 마을 소득도 성과를 내서 이름답고 잘 사는 북분리를 만들고자 한다.

〈글·사진 : 편집부〉



## “양양의 가을 산, 복령의 향기만 같아라” 불로장수 비방을 찾던 신선들의 음식 ‘양양 송이버섯’



신라 때, 딱 한 조각으로 한 나라의 절대군주였던 왕을 결정하게 된 사연이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감동적이라 할 만한 왕위의 결정 방식이다. 이는 상대 대권주자의 제안에 따른 것인데 “떡을 물었을 때 누구의 치아가 더 많은지에 따라 왕을 결정함이 어떨겠는가”였다. 한 나라의 왕을 결정하는 중대사에서 얼토당토 않는 일이지만 결국, 두 후보자는 떡을 물어 치아가 많은 후보자를 왕위에 올리기로 합의하여 왕을 선출하게 되었다. 그렇게 즉위하게 된 왕이 ‘추석’하면 빠짐없이 거론되는 신라 제3대 유리왕으로 즉위한 달(月)이 요맘때이던 9월이다.

### 이긴 쪽도, 진 쪽도 서운하지 않았던 추석의 유래

당시, 왕위 계승을 양보하려던 유리왕과 함께 강력한 대권 라이벌이었던 이는 ‘탈해’라고 하는 사람으로, 유리왕이 왕위에 오른 어느 훗날 ‘탈해’에게 물기를 “어찌 나 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왕위를 양보 하였는가”라며 묻자 “치아가 많은 사람은 성스럽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옛 선인들이 이르기에 제안하게 되었다”며 이르며 왕위의 계승을 양보하려 했던 자신의 속마음도 전했다.

딱 한 조각으로 왕위를 계승하게 된 신라 제3대 유리왕의 정치적 업적은 미약하여 그다지 주목 받을 만한 일이 없다. 하지만 ‘추석’하면 ‘유리왕’을 빼놓을 수 없다. 곧 추석의 유래가 유리왕 때부터 시작된 명절이기 때문이다. 수도인 경주를 6부의 행정구역으로 나눈 이후, 경주의 모든 부녀자를 두 편으로 나

누게 하고는, 7월 보름부터 8월 보름날까지 한 달 동안 길쌈매기를 하게하여 마지막 날인 8월 15일에 승부를 가렸던 가배(嘉俳)라고 하는 길쌈놀이에서 유래된 명절이 지금의 ‘추석’이기 때문이다.

패한 쪽에서는 술과 음식을 마련하여 이긴 쪽을 정성껏 대접하게 되었는데, 지금도 추석 밥상이 일 년 열두 달, 어느 때 보다 즐거운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는 무의식적으로 잇고 있는 식문화일 수 있다. 길쌈놀이에서 패한 쪽에서 마련한 음식 중에는 꼭 요맘때 먹을 제철 음식도 마련하였는데, 유리왕 또한 진상품으로 받은 귀한 ‘염장 송이버섯’을 친히 내렸는데, 이처럼 복령의 향취가 오묘한 송이버섯은 삼국시대 이전의 역사에서부터 지금까지 진귀한 음식으로 대접받고 있다.



### 목은 이색의 신선이 되는 가장 빠른 길

세종대왕은 중국에서 사신이 올 때 마다 조선 최고의 음식이라며 선물을 하였고, 연산군은 송이육식에 채취를 금지하는 송이금표지역을 처음으로 정하였고, 83세로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영조대왕은 평생 송이버섯을 별미로 먹었으면서도 죽는 날까지 송이버섯을 찾았으며, 서거정과 김시습, 이인로 등의 문인들 역시 송이버섯 예찬시를 짓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심지어, 저잣거리에서 왕실까지 조선 사람들의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기록한 '어우야담'에도 송이버섯의 진귀한 맛과 향을 기록하여 두고 있다. 특히 고려시대 사람인 목은 이색은 '예전 사람들은 신선이 되겠다며 불로초를 찾아다녔는데, 신선이 되는 가장 빠른 길은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송이버섯을 먹는 것이다'라고 할 만큼 송이버섯을 극찬하였다. 성급한 추석 절기로 때가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도 들지만, 양양의 송이버섯은 신위(神位)에 가장 먼저 올리는 햇곡식과도 같은 천신품목(薦新品目)이라 능히 말할 만 하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하듯, 유리왕이 친히 백성의 부녀자에게까지 아낌없이 내려 함께 나눠 먹었던 송이버섯의 향이라도 소홀함 없이 가득해지는 양양의 가을날이 더욱 그리운 때이다.

〈글 · 사진 : 강원도외식저널대표 황영철〉



책 이야기

“꿈을 찾아 떠나는 양치기 소년의 여정”

스페인 초원의 양치기 산티아고가 같은 꿈을 두 번 꾸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이집트 피라미드 근처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담은 이 소설은 말 그대로 성인을 위한 동화입니다.

여행길에서 만나는 사람과 사건들을 통해 산티아고는 그때그때 필요한 메시지들을 얻으며 목적지인 피라미드를 향해 사막을 가로질러 나아갑니다. 짐시, 점쟁이, 늙은 왕, 연금술사, 그리고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오아시스의 여인 등 산티아고가 만나는 사람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들은 그가 피라미드로 가는 보물 지도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산티아고가 우여곡절 끝에 보물을 발견한 곳은 결국 그가 출발했던 스페인 초원의 교회 앞입니다. 작가는 이 단순한 이야기 구조 속에 인생의 교훈을 숨겨두었습니다. 어딘가에 있다고 믿는 보물을 찾아 떠나는 것과 자신만이 생각하는 성공, 행복, 만족 등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주 흡사해 보입니다.

작가는 이 책을 통해 보물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영혼의 성장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 속 밑줄 긋기 = 「산티아고가 가장 흥미를 느낀 책은 유명

연금술사 / 파울로 코엘료 지음 / 문학동네 / 2001



더불어 읽으면 좋은[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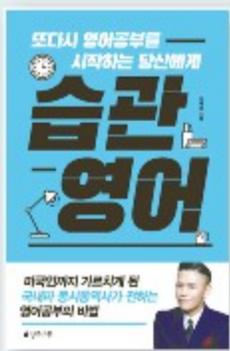
- 릴리에게, 할아버지가  
앨런 맥팔레인 지음, 알에이치코리아, 2015
- 남은 생의 첫날  
비르지니 그리말디 지음, 열림원, 2016
- 인생 우화  
류시화 지음, 연금술사, 2018

한 연금술사들의 이야기가 담긴 것이었다. 그들은 실험실에서 금속을 정제하는 데 전 생애를 바친 사람들이었다. 연금술사들은 어떤 금속을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가열하면 그 금속 특유의 물질적 특성은 전부 발산되어 버리고 그 자리에는 오직 만물의 정기만이 남게 될 거라고 믿었다.

그들은 이 최종 물질이 모든 사물들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언어이므로, 이 물질을 통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들은 이렇게 해서 발견한 물질을 '위대한 업'이라고 불렀다.」(p. 137)

(양양교육도서관 사서 이순형)

사서가 추천하는 이달의 [신간]



습관 영어

김태훈 지음/ 망고나무 / 2019

저자는 외국에서 공부한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번역사, 통번역 강사, 한국외대 외래 교수 등의 직업을 가진 자타공인 영어전문가라 합니다. 그는 '노력과 시간 없이 영어를 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모든 외국어 학습자들은 형편없는 실력에서 출발한다.는 명제를 꼭 기억하라고 합니다. 영어에 자신이 없어 매번 영어 공부를 하려고 마음먹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할 때, 영어를 습관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학습법을 알려주는 유익한 책입니다.



별 낚시

김상근 지음 / 사계절출판사 / 2019

주인공 아이는 별을 타고 밤하늘로 올라가서 별 낚시를 하던 토끼를 만납니다. 그리고 아이는 토끼와 함께 줄을 내려 어디선가 잠이 안 와서 홀로 깨어 있을 또 다른 친구들을 찾아 나섭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잠이 오지 않는 밤, 모두가 잠들었는데 혼자만 깨어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혼자 자니까 잠이 안 오고 혼자라서 무서웠던 마음들이 오고 가며 아이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그림책입니다. 또한 고요한 밤에만 느낄 수 있는 깊은 감성 표현으로, 장면마다 가득 펼쳐지는 신비로운 밤하늘 풍경이 매우 장관입니다.

**오피니언 호림 유격 돌발사건**

강현면 회룡리 김재수씨는 우리고장에서 시초가 되었던 호림유격 참전사건을 군민에게 알리고자 아래의 기고문을 군청 홍보부서로 보내셨습니다. 양양을 사랑하는 의견 소중히 잘 받았기에 소식지에 게재합니다.

우리 고장 양양에서 시초가 되었던 7월의 호림(虎林)유격 돌발사건을 내 고장 군민은 얼마나 기억하고 있으며 잊지나 않고 있는지 반세기를 넘어만 70년을 맞고 충혼비 제막 26돌을 맞아 대강 그 개요만을 밝혀 그 시대정신을 일깨워 그 분을 다시 되새겨 남들을 추모코자 합니다.

1949년 6월초 육군본부 정보국(정보국장 백선엽) 직속으로 특수부대를 창설 육군 수색학교(수원위치)에 입교하여 소정의 군사훈련을 단기 수료하고 육군 호림(虎林)부대로 명명 제5대대 제6대대로 각 부대인원 120명으로 특수 편성하여 제5대대장 백의곤대위, 제6대대장 김현주대위를 선두로 기히 계획된 작전 임무를 수행코자 동년 6월 29일 38°선을 돌파 백의곤대위가 이끄는 제5대대는 설악 화채봉에 침투 대한민국의 최초 별공 유격전의 근거지가 되었다.

호림 유격전의 기록은 지면 관계로 상세히 밝혀 기록할 수는 없으나 호림 유격전의 기록은 육군 최초<육군전사집>에 기록되어 있고 호림 유격회에서 발행(2012.8.1.)한 <북파호림부대전사>에도 기록되어 있거니와 「호림 유격대」는 북괴의 각종 도발로 인하여 국내치안의 어지럽던 1948년 12월 창군이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초의 유격대로 편성된 이래 군번 없는 군인으로서 목숨을 걸고 적 후방에 뛰어들어 기습 교란 작전 및 군사 정보획득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정규군에 못지않은 혁혁한 공을 세운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호림유격대원들의 위국헌신의 군인 정신은 오늘날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참다운 군인정신과 진정한 애국의 길이 무엇인가를 행동으로 보여준 귀감이라 하겠습니다.」 여기 참고로 「호림 전사집」에 실린 문중섭 당시 장군의 헌시 전문을 옮겨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자유인들에게 전하다오/여기/자유대환을 수호하기 위하여/반공전선에서 싸우다 산화한/사랑하는 전우들의 영전에/생존한 동지들의 뜻을 모아/남들의 충혼을 추모하기 위하여/격전지였던 갈림길 마루턱에/돌하나를 다듬어 길이니/부디/조국의 수호신이 되어/이 나라 이 민족을/굽어 살피 주시옵소서.

(2000.1.15.) 문중섭 장군

진작에 이북의 괴뢰들은 우리고장 7월에 있었던 호림유격사건을 북침이라 억지를 쓰면서 저들의 남침을 합리화하는데 이용

하고 있기까지 하다.

언이나 호림 7월 돌발사건이 있으지도 70년 세월이 흘렀고 조국의 자유를 위하여 멀리는 제주에서 있었던 1948년의 4.3사건도 국가에서 보훈으로 기억하고 있고 60년의 4.19의거도 물론이요 이후 5.18광주민주항쟁 역시 거국적 행사로 지원 보답하고 있지 않은가? 가까이 세월호 어린 학생의 참상도 국가에서는 잊지 않고 끈기 있게 보상하고 있어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거니와 과연 우리 고장의 7월의 애국애족의 유격사건은 어디에 견줄 것이며 과연 기억하고 관심이나 갖고 있는 것인지 한스럽기 그지없다.

여기 호림 유격의 전공(戰功)을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하여 백선엽 장군이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보낸 편지를 일부를 소개코자 합니다.

존경하옵는 한민구 국방장관에게/안녕하십니까 백선엽입니다./어느덧 6.25전쟁 6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대한민국의 국방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장관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본인은 당시 육군 본부 정보국장으로서 그들이 나라를 위해 안타깝게 희생된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당시 북파되었던 호림부대원들 대부분이 전사하였고 일부 생존자가 있었으나 그들과 전사자 유족들에게 응분의 보상을 하지 못한 상태로 지금에 이르렀다고 합니다./이제라도 우리 정부가 해결해 주어야할 미완(未完)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 하 생 략 -

2015. 6. 10./ 예비역 육군대장 백선엽

이제 내 나이 80을 넘었으니 지난 유격의 역사도 흐려만 간다. 더 늦기 전에 애국 유격사건을 알리고 이제 남은 유족도 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 「양양소식지」를 통해 내 고장 군민에게 그 개요만이라도 알려 희생된 아버지, 삼촌, 형님에게 유족을 대표해 그 한을 조금이나마 위로코자 한다.

끝으로 알리고 싶은 것은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리 통일공원에 있는 전적비를 찾아 매년 추모하는 추모제 비용을 김진하 군수의 호의로 추모 비용 일부를 충당하고 있어 이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유족을 대표해서 고마움을 전합니다.

2019년/ 회룡리 일우에서 김재수

**양양군일자리지원센터 추천 일자리**

양양군청 본관3층 경제에너지과  
TEL. 033)670-2289  
FAX. 033)670-2303

사업장명	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여
주식회사 다인	2명	전기기사, 기계기사	09:00~18:00 (주5일)	월200만원이상 (면접후 협의)
설악송이파크	4명	정육가공원	08:30~18:00 (주5일)	월175만원이상 (면접후 협의)
일양중합금속(주)	2명	철구조물,창호설치원 (음집가능자 우대)	08:30~18:00 (주6일)	월190만원이상 (면접후 협의)
광운통신(주)	3명	방송,통신인터넷케이블 설치수리원	09:00~18:00 (주6일)	월180만원이상 (면접후 협의)
새한자동차공업사	1명	자동차 정비원 (경력자 우대)	09:00~18:00 토:13시까지	월200만원이상 (면접후 협의)
(주)골든에스엔씨	5명	프론트사무원	시간협의	월210만원
	10명	콜메이드 하우스기퍼	08:30~18:00 (주6일)	월210만원
(주)세인	1명	경리사무원	09:00~18:00 (주5일)	월180만원
(주)매콤알앤에프	1명	물류구매 주임	09:00~18:00 (주5일)	월190만원

▶ 양양군 일자리지원센터와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수시로 구인, 구직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이달의 추천 일자리는 2019년 8월 22일 기준 구인정보이며, 업체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 접수**

- 신청기간 : 상시
  - ※ 지급시기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복지과
- 신청대상 :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 양양군 보훈영예수당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금액 : (매월 15일) 5만원
- 신청서류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
  -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 신청인 통장사본
- 문 의 : 양양군청 복지과 ☎ 033)670-2294 및 읍·면사무소

**강원도 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지원제도 안내**

- 풍수해보험 가입기업 지원을 위한 우대보증 시행
  - 대상업체
    -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 중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중인 기업
  - 보증한도 : 최대 5천만원
  - 보증료 : 0.8%
  - 기타사항 : - 시행일 : 2019. 8. 6. - 정부자금 및 지자체 이차보전자금과 연계 가능
- 문의 : 강원신용보증재단 속초지점 (033-260-0070) 속초시 청학로 37 (수광빌딩 4층)
- 담당 : 강원신용보증재단 속초지점 지점장 박선호 (033-260-0070)

**2019년 하반기 군민정보화교육**

월별	기간	접수기간	교육내용
9월	9. 2. ~ 9. 27. (월수금)	8. 26. ~ 8. 30.	(주간) 스마트폰입문(기본 사용법) 컴퓨터 입문 & 인터넷 활용
			(야간) 스마트폰활용, 포토샵 및 동영상 편집 컴퓨터 기초
10월	9. 30. ~ 10. 25. (월수금)	9. 23. ~ 9. 27.	(주간) 스마트폰활용(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앱 활용) 한글(워드) 작성활용
			(야간) 스마트폰활용, 사진촬영 및 편집 IT엑셀 (강의 및 실습 병행)
11월	11. 4. ~ 11. 29. (월수금)	10. 27. ~ 11. 1.	(주간) SNS의 이해(블로그) 멀티미디어 입문(사진&동영상 편집)
			(야간) 스마트폰 활용 (실생활 앱 활용, 이미지·동영상 편집) IT엑셀 (강의 및 실습 병행)
12월	12. 2. ~ 12. 27. (월수금)	11. 25. ~ 11. 29.	(주간) SNS의 활용(인스타그램) 파워포인트 입문
			(야간) 스마트폰 활용, UCC만들기 IT한글 (강의 및 실습 병행)

- 장 소 : 문화복지회관 3층 컴퓨터정보교실
- 인 원 : 28명(선착순) \* 소수 신청시 취소 될수 있음
- 시 간 : (주간반) 10:00~12:00 / (야간반) 18:30~20:30
- 신청방법 : ① 인터넷 : 양양군청 홈페이지(www.yangyang.go.kr)  
\* [분야별정보]-[교육]-[교육신청]
- ② 전 화 : 033-670-2116



## 설해원 雪海園 레전드매치

SEOLHAEONE LEGENDS MATCH

여자 골프 역사의 새로운 레전드를 만든다!  
LPGA 메이저 우승 합계 43승의 레전드가 만들어낸 희망과 도전의 감동,  
현 LPGA 톱랭커들의 뜨거운 샷 대결을 통해 미리보는 여자 골프 올림픽!  
오는 9월 21일 ~ 22일 강원도 양양군 설해원雪海園에서 펼쳐진다.

제 28 회

# 강원 민속 예술 축제

2019 **9.19 (목)**  
- **9.20 (금)** (2일간)  
양양군 양양종합운동장

개막식 : 9.19(목) 10:00  
(축하공연 : 오징어, 강원도립예술단, 국악단 소리개)

행사내용 : 강원도 시·군 민속단 민속예술 경연대회

주최 : 강원도, KBS, 충청방송총국

주관 : 양양군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우리는 **대한민국**  
영웅의 명예를  
반드시  
찾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호국영웅의 소재를 재보해주세요!  
6-25 전쟁 당시 전사자 직할 배양, 목격 또는 들은 사실이 있다면 하루 빨리 재보해주세요!

찾고 배양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  
찾아 시 1만원 상당의 기념품 제공, "유가족 인양 시 10만원 지원"  
\*유가족 인양 : 인양에 참여 하면 유해 발굴 비용 50% 지원 (유해 1개 이상 분해)  
\* 시료채취 : 가까운 보건소, 군병원, 대학교 등에 국영유 유해발굴센터 (보건소, 군병원 방문 채취 시 무료진료(2022.12.31))  
\* 배양채취 : 영양이 배양가나 개량이 불행하시 분 지역영양  
\* 전화신청 : 1577-5625 무전자 시료채취 지원(발굴/직할제)  
\* 현장신청 : 소속부대 인사담당자에게 신청 또는 시 1만원 상당의 기념품(유해후구 제공)

호국영웅 명예 훈장  
www.hoguk.gov

국영유 유해발굴센터(MAKRI)  
MND Agency for KIA Recovery & Identification

문의전화 **1577-5625** 24시간

강원도청 특화 사업  
2019 신혼부부 주거 비용 지원사업

# 2019 신혼부부 주거 비용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19.9.2 - 10.31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대상 : 전년도(2018년)에 주민등록한 부부(배우자) 중 배우자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자(국·민·공·민·공·민·공·민·공)  
지원내용 : 전년도 소득이 1000만원 이하 3만원 ~ 12만원 지원(지역)

실용기술교육  
KCOEC

1339  
Korea Career Center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 9대 생활수칙

1. 염분은 반드시 끊습니다	2. 술은 하루에 한 두잔 이하로 줄입니다	3. 흡연은 완전히 끊고, 술과 채소는 흡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가능한 한 매일 30분 이상 적당한 운동을 합니다	5. 적당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합니다	6.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합니다
7.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합니다	8.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을 꾸준히 치료합니다	9. 뇌졸중, 심근경색*의 응급 증상을 숙지하고 발생 즉시 병원에 갑니다

\* 뇌졸중(중풍) : 뇌혈관 장애로, 급작스럽게 언어장애, 감각장애, 운동장애, 시각장애, 급작스러운 두통 등 뇌졸중의 3대 증상(감각장애, 운동장애, 언어장애)을 동반하는 장애

1825년 21개년 1회

고맙다! 양양  
THANK YOU! YANGYANG

# 양양 송이 축제 2019

The 23rd  
Yangyang Song-i Festival

사전인터넷접수 | 2019년 8월 1일 ~ 9월 22일  
축제문의 | 양양군청 문화관광체육과 033)670-2207, 2723  
주관 | 양양군축제위원회 주최 | 양양군  
참가신청 | <http://song-i.yangyang.go.kr>

2019. **9. 26** (목)  
- **9. 29** (일)  
양양 남대천 둔치

양양군 